

[로스쿨 합격기]

전문법조인을 향한 첫 발걸음

- 1980년 8월 生
-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1999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5년)
- (現)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우 지 연

I. 들어가며

어느덧 3기 로스쿨 입학전형이 면접도 끝나고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릴 때입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한 달간, 초조하기도 하고 벽차기도 했던 일년 전 이맘때가 떠오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4기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로스쿨 진학을 그 자체로 목표로 삼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로스쿨이 어떻게 중간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직선상에 놓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제통상법 전문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내가 밟아온 길에서 어떠한 점들이 이러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지

플라보고 이 돌들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학교마다의 강점이나 원하는 인재상, 장학제도 그리고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로스쿨을 찾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표로 하는 분야를 강점으로 하는 로스쿨은 본인이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은 요소들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정점을 향해 이어진 모습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나에게 맞는 로스쿨을 찾을 때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그리고 진학 후 진로를 탐색하는 때에도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망설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문을 전공하였던 간에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공은 없습니다. 또 대학졸업 후 바로 로스쿨을 진학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젊은 패기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스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II. 준비기간

많은 수험생들이 로스쿨 준비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할지, 시작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실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길게는 직장도 그만두고 일년씩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준비 없이 시험만 보고 운 좋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사 개월 정도면 문제풀이에 시간 배분하는 훈련과 이산수학 등의 추리논증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순서는 영어 성적 및 봉사 기타 사항 준비, 리트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월부터 정보 탐색 및 영어 점수 준비를 하고, 사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 그룹과 동영상 강의, 논술 학원 수강을 통한 리트 준비에 돌입했으니 네 달 반 정도 리트 및 논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주로 활용하였고 주중에는 한 두 시간 정도 준비하다가 6월부터는 모의고사 체제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모의고사 20문제를 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틀린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6월이 되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 여름휴가를 일주일 내고 집 앞 독서실을 끊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반에 무리하게 되면 후반에 지치게 되어 문제풀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까지는 시간관리나 감각 유지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 되면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두 번 모의고사를 치렀을 뿐인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시험을 보기가 힘들어서 마지막 모의고사는 신청만 해놓고 포기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III. 영어 성적 및 기타 활동

본격적으로 리트 공부에 돌입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영어 성적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기타 활동 내역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늦게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리트와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어 성적

저는 로스쿨 대비로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였다기보다는 직장일 때문에 짬짬이 공부해왔고 2월 3월로 시험만 두 차례 치렀습니다.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 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왔기에 그 후부터는 리트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는 작업은 초반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리트 공부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5월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영어 성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TOEIC인지 TEPS인지 확인하고, 학교에 따라 2년간 성적이 아닌 1년 이내의 성적만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1년 내의 성적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원했던 건국대학교가 1년 내의 성적만 유효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어서 마지막에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건국대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몇몇 보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점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 단기간에 영어점수를 높이려면 문제 푸는 요령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듣기 평가 같은 경우 특히 요령이 많이 좌우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익훈 EAR OF TOEIC의 앞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듣기 평가 등 좋은 책들에 나와 있는 문제 푸는 요령을 숙지한다면, 단과 학원을 한 두달 수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듣기 평가 요령을 시험보기 전날 저녁에 한번 씩 다시 읽고 있는데 듣기평가는 대부분 만점이 나왔습니다. 제 경우는 문법과 단어 부분에서

주로 많이 틀리는 편이었는데 기출문제 1000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만 집중 점검했더니 900점대 초중반에서 후반으로 약 50점 가량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 기타 활동

법 공부를 선행하였거나 법 관련 활동경력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 경력도 자기소개서에 기재사항이 되므로 활동하신 것이 있다면 미리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학부시절에 법학 관련 수강 경험이 없어서 방송통신대학교의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생활법률과 헌법, 재산법, 형법각론을 수강하였는데 직장생활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시험 전날 강의를 열개씩 듣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시험장에 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력으로도 도움이 되고, 면접 시 기본적인나마 법률 지식을 조금 가지게 되어 대응하는데 시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대학 때 활동하였던 자원봉사회 경력과 회사 재직 시에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을 확인서를 받아서 냈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서 마감 일주일 전에 급하게 준비해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준비하실 분들은 리트 시험이 끝나고 바로 확인증 등 준비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V. 리트 공부

리트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1회 리트 시험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았습니다. 결과는 무난한 수준이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비슷한 점수대에서 오르내렸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1월에는 무작정 서점에 가서 리트관련 책을 마구잡이로 구입해서 풀어보았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교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은 시작하기 전에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많이 보는 책, 구성이 좋은 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구입하거나 스터디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허락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하셔도 좋고 독학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추리논증의 문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풀이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하면 성적이 향상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하시고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공부한 분야에서 지문이 출제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권

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상의하여 언어영역과 추리논증의 주 교재를 구해서 꾸준히 풀고 주말마다 모여서 진도 체크 및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서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주말에 서너시간 정도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같이 조성우 추리논증 기본강의를 진도 체크하며 들었고 언어이해는 별도로 강의를 듣지는 않고 진도체크 및 질답만 했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스터디를 운영하였는데 하프 모의 고사 방식으로 언어이해 20문항, 추리논증 20문항을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애먹었는데 이 때 이시한 저자의 언어 이해 교재로 키워드로 글 읽기, 주제 문장으로 글 읽기 훈련을 했더니 어느정도 구조적 독해에 익숙해져 글 읽는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이 스터디 하던 친구는 지문별 시간을 배분하여 그 시간이 경과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했는데 성적이 있었는지 7월 정도가 되니 시간 내에 모두 문제를 풀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스터디원 중에서도 가장 독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2회 응시하였는데 점수와 석차 편차도 크고 문제 난이도도 제각각이어서 실력 평가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대신 시간관리나 컨디션 관리에 참고할 만 했습니다. 이보다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있는 문제를 반씩 끊어서 풀면서 시간관리를 하였습니다.

언어이해 첫 부분에 나오는 맞춤법 및 한자성어 문제는 공부해서 풀고자 하면 공부할 양이 워낙 방대하므로 시간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공부를 생략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간혹 학원에서 이 부분은 무료강의로 하루 이틀 정도에 마쳐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니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V. 논술 공부

논술은 리트보다 반영비중이 약하고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는 선호하는 학교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저는 4월 스터디 모임이 논술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술 준비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학원은 소수 인원으로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매일 논술을 쓴 후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자기가 느낀 점 및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당혹스럽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금세 적응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글 쓰는 방식 중 좋은 점은 배우게 되고 같은 주제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는지 보게 되니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면이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주제는 시사성이 있는 주제들이 많아 자연스레 면접 준비도 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은 혼자 써보기 보다는 학원을 통해 시사성있는 주제들을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학원 스타일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샘플강좌로 1회 정도 들어보고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VI.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1. 자기소개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막연히 그간 해 왔던 업무 중 법 관련된 업무도 있고 전공지식과 법 전공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기 시작하니 성장과정부터 시작하여 어떤 부분을 로스쿨 진학과 연결시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 열 번 넘게 전면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법조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저는 되도록이면 일찍 하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지원할 학교를 명확히 정해 처음부터 목표가 확실하고 그에 따라 기타 활동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다만 학교 특성화에 너무 맞추어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특성화는 부동산법인데 이쪽에 대해서 업무경험이나 공부한 경험을 꼭 가질 필요는 없고 꼭 부동산법을 전공할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가 기업법무라면 그 쪽으로 집중하여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나아가려고 하는지는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일단 초고를 작성하고 나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첨삭을 요청해서 다른 시각에서 자꾸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는 논술 강사님과 로스쿨 선배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초고는 그야말로 눈물이 절끔 나도록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번을 다시 쓰고 고쳐나가고 하니 마지막에는 제법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 면접 준비

면접은 인성면접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서 스터디원들끼리 직접 면접관과 수험자가 되어 압박질문도 하고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섞어가며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점이 나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기본적인 질문들을 대비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나올지 특히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비하고 가야합니다.

시사 문제는 논술 학원에서 준 최신 시사 쟁점 자료를 펼쳐놓고 같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던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친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 훑었는데, 문제를 읽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논리를 얘기하면 친구가 듣고, 그 문제에서 이슈되는 법적 쟁점과 대답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쟁점이 1cm 정도 되는 두께로 세 권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하루에 네시간씩 두 번 정도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고마운 친구 덕분에 모든 시사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대답을 정리해갈 수 있었고 가, 나군에 걸친 면접에서 받은 질문은 모두 연습했던 쟁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면접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그 친구도 로스쿨 진학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술 면접 때 간혹 같이 면접시험을 치르는 수험자의 입장을 비판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 한쪽면만 극단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찬반 양 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친구와 훈련을 하면서 균형 있는 관점 유지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어 이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법학 공부를 한 친구가 있다면 법적 관점으로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VII. 마치며

로스쿨입시는 지식의 양과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적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걸마인드를 배양하고 법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이 한여름에 있기 때문에 적절히 휴식을 취해주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시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각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되어 있을 그 날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